

지역 소식 통

정읍수성1 영구주택

예비입주자 200가구 모집

정읍시가 전 세대 새 단장을 마친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200가구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주택은 36.54㎡(11평형) 단일 주택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 1세대당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 위한 조사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근무환경, 인권 실태를 진단해 2027년부터 적용할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보수수준 및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조사 결과는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2027~2029)'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네이버 설문 양식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무기명으로 조사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의 수집과 분석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지급

부안군, 2030년까지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준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부안군은 고물가 잠기화와 경기 침체로 시름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부안형 기본사회 준비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30만원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군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햇빛과 바람 등 지역의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익 구조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30년 이후 전 군민에게 월 30만원 이상

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8월 3일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F6), 영주권(F5) 체류 외국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부안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오는 9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에도 총동원된다. 군은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현지 출장 방식으로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급된 선불 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군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관·군·경 힘 모아 시민 지킨다’

정읍시, 18일 을지연습 앞두고… 준비상황 등 점검

정읍시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드론 테러 대응훈련과 주민 보호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제8098부대 3대대장과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의 추진계획과 기관별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드론 테러 대응 실제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보호,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위협 등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상황을 가장한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이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추석 전 지급 확정

내달 1일 부터 1인당 30만원 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민선 9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공약인 군민활력지원금(1인 30만원)의 추석전 지급이 확정됐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5일) 고창군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심의 가결된 따라 군민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된다. 군민활력지원금은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51억200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

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추석 전 집중 지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된다. 추석을 앞두고 군민활력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명절 장보기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선운사 영산전’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심덕섭 군수, 보물 지정서 전달… “문화유산 제 가치 찾도록 총력”

‘조선 후기 불교건축물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는 고창선운사 영산전이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돼 지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6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우선운사(대함불교 조계종 24교구 분사) 주지스님에게 ‘고창 선운사 영산전’의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다. ‘고창 선운사 영산전’은 대웅전과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이다. 1474년(성종 5) 2층 장륙전(丈六殿)으로 창건된 이래 정유재란과 화재로 두 차례 소실되는 등 중건을 거듭했으며, 1713년(숙종 39) 2층 각황전(覺皇殿)으로 재건되었다가 1821년(순조 21) 단층으로 개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산전은 건립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존 건물의 부재가 다수 남아있고, 내부에는 1821년 개축 당시의 벽화가 남아있어 역사적·건축학적·미술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특히 중앙에 목조삼존불을, 좌우에 나한상을 봉안해 영산회상(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한 모임)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한 점에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이번 보물



지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영산전의 보물 지정으로 고창선운사는 국가지정 보물 9점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동백나무 숲 등 천연기념물과 다양한 국가유산을 품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됐다. 이외에도 현재 고창에선 ‘고창 황윤석 생가(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사적)’, ‘고창 무장읍성 출토 비석진전퇴(보물)’ 등이 국가지유산청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의 미래 바꿀 78개 약속… 민선9기 공약 실행 시동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8개 분야 78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유호연 부시장과 국·소장, 전체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별 실행 가능성과 추진 일정,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살폈다.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

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일자리·경제 11개, 농업·농촌 11개, 보육·교육 10개, 문화·관광·체육 10개, 보건·복지 10개, 도시·교통·환경 10개, 청년·소상공인 8개, 체류·생활인구 8개 등 모두 78개다. 시는 대부분의 공약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계획 반영, 행정절차 이행, 대규모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첨단의료복합 국가산업단지

기반 마련, 인공지능(AI) 바이오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정읍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이 있다.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이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8~10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민선9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이학수 시장은 “함께 만든 변화”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고, ‘함께 여는 미래’를 완성하는 것이 민선9기의 목표”라며 “적극행정과 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동죽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펄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펄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